

생활 속에 안전을 넣다

- 능원금속공업(주) -

취재 | 최중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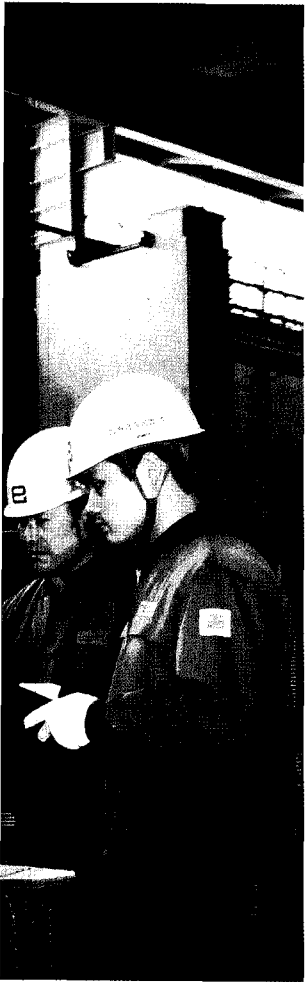
안전실천의 습관화가 무재해 지름길

연초 새해를 맞이하며 올해 저희 회사가 추구할 가치를 선정했었습니다. 그것은 '협력', '회합' 그리고 '의사소통'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세 가치가 추구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자'는 것이지요. 노와 사 그리고 회사와 고객의 협력, 팀과 팀 그리고 근로자와 근로자의 화합, 팀의 리더와 작업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이 세 가치가 어우러진다면 안전한 사업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합니다.

이 가치들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업장내 각 공정의 리더와 근로자들에게 확고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이 진행되는 활동은 오히려 사업장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인식의 중요성은 몇 번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식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안전 사고를 막겠다고 안전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여 대량 설치를 해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작업자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해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재해에 이르는 지름길은 간단합니다.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안전교육에 임하며 이를 통해 잠재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김성배 부장



1986년 경기도 양주에서 '능원금속공업(주)'는 세상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건축배관용 동관 생산 기술에 대한 자부심 하나만을 갖고 문을 열었지만 세상의 반응은 차가웠다. 세상의 잣대에 의하면 이곳은 작은 위기에든 곧 무너질 영세한 중소기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5년이 흐른 지금, 세상의 선불렀던 편견은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이 작았던 회사가 당당히 동관(Copper Tube) 업계의 선두기업으로 올라선 것이다. 기술력, 생산성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그것은 바로 '기술에 대한 고집'과 '안전중심 경영'이다.

능원금속공업(주)는 25년 동안 동관 한 분야에만 전념을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취득한 환경경영인증만도 ISO9001, QAS, ITS, NSF, JIS, ISO14001 등 6개에 달한다. 이런 노력을 지속한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된 노하우와 기술력이 쌓여갔고, 이곳의 동관은 산소함유량이 적고 가공성이 우수하다는 시장의 평가가 쏟아졌다.

현재 능원금속공업(주)은 6mm~310mm 규모 1,200여종의 각종 동관을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작년에만 8,000만발 이상을 수출했다. 이처럼 안전중심경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 그들만의 안전활동을 살펴봤다.

안전의 시작은 관리자의 솔선수범

동관 생산은 원재료를 주조공정인 수직연속주조설비에서 용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생산된 동 빌렛트는 3,000톤과 1,650톤의 압출설비에서 압출 과정을 거쳐 원관이 된다. 이 원관이 다시 압연과 인발공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써 동관으로 탄생된다.

이런 용해·압출·압연 등 모든 공정에는 상당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지금까지 무재해 현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 비결에 대해 이곳에서는 '관리자(팀장)들의 솔선수범'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생산되는 제품은 중량물인 관계로 물류 이동시에 현장내의 천정크레인을 사용하여 이동작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 실수가 있다면 엄청난 무게의 중량물이 떨어지거나 작업자와 충돌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능원금속공업(주)에서는 천정크레인 이동경로를 설비 위쪽으로 정해서 작업자 동선과 겹치지 않게 하고, 안전조작과 안전작업 수칙은 작업시작전부터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무장케 한다.

안전의 생활·습관화

이곳 안전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강요하지 않는 안전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 안전을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생활·습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반장 또는 관리자들은 주머니에 크레인 후크 안전핀을 휴대하고 있는데 천정크레인의 후크 안전핀의 파손이 잦아 발견 즉시 교체하기 위한 이들의 습관이다. 이런 생활·습관화된 안전활동은 현장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지게차 운전자는 단시간의 작업이라고 안전벨트와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또 비철금속제조 과정에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귀마개는 근로자 자신의 청력을 보호하는 도구로 삼는다. 이러한 보호구는 현장 곳곳에 설치된 보관함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가 보관하고 착용하는 습관도 능원금속공업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다.

근로자가 즐거워야 안전도 즐겁다

감성안전은 시설·체계 등의 관리 못지않게 이곳에서 중점을 두는 안전분야다. 스트레스가 없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공정 역시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에서다. 이를 위해 축구, 등산, 낚시 등의 건강 문화 활동을 회사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이를 영유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참여시켜 독려하고 있다. 근로자의 심적·육체적 안정이 가정의 안정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회사의 안정과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체계·인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안전활동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2007년 전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노동부장관 금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능원금속공업(주)은 아직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 인력 인프라와 설비개선 중심의 현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빈틈없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재 이곳은 효과적인 잠재위험요소 관리와 체계적인 안전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멈출 줄 모르는 열정이 계속되는 한 능원금속공업(주)의 무재해 역사는 앞으로도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